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9월 5일(금)

..(음력 7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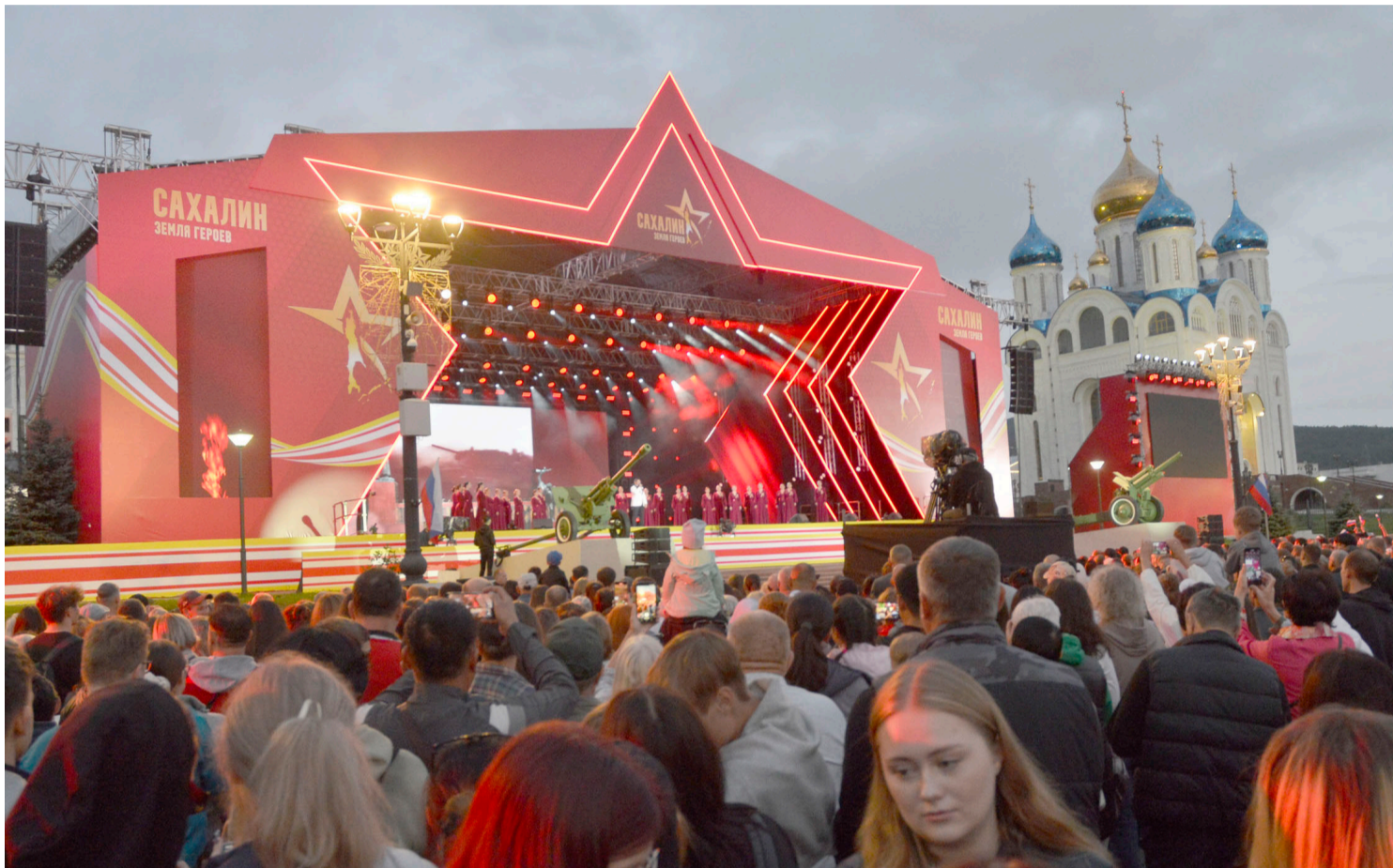
Пятница

5 сентября 2025 г.

№ 35 (1215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9월 3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다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맞아 대규모 공연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9월 3일(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전승 80주년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국경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80년 전 국제적 규모의 사건들은 우리 사할린 지역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마침내 일본의 군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조상의 땅을 조국에 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 사할린 공습작전과 쿠릴 상륙작전 참전용사들의 공적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미르니흐 지역 로쉬노 마을에는 야외 군 역사기념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슈슈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1차 군 역사기념박물관 단지가 건립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극동지역에서 소련 군사무기가 이뤄낸 찬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후 사할린 각 지역의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날 사할린주의 번영을 이룩하신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시련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조국을 사랑하며,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친애하는 동향인 여러분! 전승 8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가장 소중한 사람의 사랑과 사할린주와 위대한 조국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성취에 무궁한 에너지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숨쉬길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전승절 기념

9월 3일(수) 사할린주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 80주년을 성대히 기념했다. 이날 주요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다(승리)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이었다. 열병식에 제68군단 사령관인 세르게이 예레센코가 참모총장 대행이 선두에 섰고, 제68 근위대 육군 군단의 연대장 대행인 안드레이 그레츠키 대령이 열병식을 영접했다.

군사 행진과 사열 영접 후 군 사령관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전용사들과 주민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바로 사할린 땅이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승리의 전장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거룩한 전쟁' 곡조에 맞춰 러시아 국기와 국방부의 깃발을 선봉대가 이송하면서 성대한 경축 행진이 시작되었다. 광장을 따라 소총연단 장교, 여군, 1945년 남 사할린을 해방시킨 사단의 영광

을 계승한 제 39 특별 전동소총부대 장병들이 행진을 하고, 그 뒤를 따라 국경수비대와 비상사태대책부, 연방 교도소의 직원들이 행진했다.

사관학교 생도, 청소년 군관 학교 생도, 청소년 코사크 기병, '아방가르드'와 '워인'센터의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수비대의 행진은 관중들에게 특별한 감동의 전율을 안겨주었다.

열병식은 군 장비의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전설적인 '카투샤'가 선두로 나가고, 그 뒤로 현대식 장갑차 БТР-80이 따르며, '그라드', '우라간'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강력한 С-400 '트리움프' 대공미사일 시스템, '바스티온' 해안 미사일 시스템이 뒤를 이어 행진했다.

이날 가가린공원에서 전승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저녁 8시는 포베다 광장에서 대규모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단신

일본에 대한 승리 80주년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방패와 검' 소공원 개장

9월 3일,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방패와 검' 소공원을 성대히 개장했다. 예멜리아노프 거리와 고리키 거리 교차로에 위치한 이 기념 공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 이들의 공적을 기린다.

개장식에 알렉산드르 필로넨코브 사할린 보안국 국장,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세르게이 나드사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을 비롯해 참전용사, 보안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필로넨코브 국장은 "극동에서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전쟁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러시아 땅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지식의 날' 맞아 새 학기 시작

9월 1일, 사할린주에서 63,300명의 학교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했다. 그중 6,029명이 신입생이며, 3,393명은 졸업반 학생이다. 이날 전 지역 학교에서 축하행사가 열렸다.

2024-2025년에 80개 교육기관(유치원 50곳, 학교 30곳)에서 보수 및 정비공사가 이뤄졌으며, 또한 루고위에 마을에는 550명이 공부할 제30호 학교의 신관이 건축됐고, 티모브스코예에는 제1호 학교 체육관이 개장됐다. 건설 중인 학교들로는 세웨로쿠릴스크에 288명 수용 규모의 학교, 돌린스크 브즈모리에에는 90명 수용 규모의 학교-유치원 복합기관, 키토위에에 110명 수용 규모의 유치원이다.

또한 9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새로이 2개 학교가 건설되어 1,260명을 수용할 제24학교가 '아방가르드' 주택단지 내에, 550명을 수용할 제25학교가 '고리존트' 주택단지 내에서 개교했다.

'사할린의 날개'

국제 무인기 포럼 개최

9월 6일부터 8일까지 국내 첫 무인기공항 '푸슈티' 내 '사할린-엑스포'행사장에서 <사할린의 날개>무인기 국제포럼이 열린다. 19개국에서 98명의 발표자와 164명의 대표자를 비롯해 1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19개 회사가 무인기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 마지막 날 국내 최초로 드론과 경비행기의 편대 드론쇼가 열려 관객들은 무인기를 활용해 전투를 재현한 일련의 군사전술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해양 프로그램으로 모르드워노브만에서는 무인선이 무인 물류작업기술 및 화물운송을 시연하고, 극동 전 지역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모의 훈련도 진행된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저에게 아이들은 날개와 뿌리를 줘야 할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세 아들의 엄마 아나스타시야 아크쇼노와의 삶 이야기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세 아들의 엄마인 사할린 한인 3세 아나스타시야 아크쇼노와(본명 이 아나스타시야, 39세)는 요즘 더욱 바빠졌다. 맏아들 사샤는 13세, 둘째 미샤는 9세, 7살의 막내 파샤는 이번에 1학년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아나스타시야에게 9월 1일 - 지식의 날은 항상 특별한 날이다. 이날 학교 행사 후 꼭 외식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아나스타시야는 아이들이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말한다.

"저에게 아이들은 날개와 뿌리를 줘야 할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날개는 제때에 부모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뿌리는 언제든지 가족의 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라고 아나스타시야는 말했다.

그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교양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이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에서 러시아 민속곡에서 바얀을 전공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는 국제음악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아나스타시야는 아들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올해는 온라인 영어 수업도 시작했다고 한다.

둘째도 역시 '에트노스' 학교를 다녔고, 실력 있는 학생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번 학기부터 그만두기로 했다. 음악보다 미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미술 교실에서도 수업을 조금씩 받았는데 이번에 시험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아동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경쟁률이 아주 높았지만 미샤는 시험 결과 10위 순위권에 들어가 아나스타시야는 엄마로서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셋째는 미술, 예술 분야 보다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 이미 1년째 축구를 즐기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어 아나스타시야는 아들들



의 일정표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짜야 한다. 이미 3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녀의 일상상은 항상 바쁘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아침 4-5시부터 시작한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개인 주택에 살다 보니 할 일이 많다. 막내가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는 매일 데려가고 데려와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1주일에 두 번은 둘째를 미술학교 수업에 데려가야 한다. 다행히 아나스타시야가 아버지가 남겨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녀의 부모님은 벌써 7년째 한국으로 나가 일하고 있다. 장남은 7학년이라 수업을 알아서 다니지만 겨울철에는 일찍 잠잠해지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야가 되도록 첫째도 차로 데리고 다닌다.

아이 셋 다 엄마의 모교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9호 동양어문학교(현 동양김나지아)를 다닌다. 아나스타시야는 이 학교에서 1학년부

터 11학년까지 공부했고 제2외국어로는 한국어 배웠다. 그녀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기대와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공과대학교 국제대학에서 '광고 매니저'를 전공해 원하는 공부를 즐겁게 공부했다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와 전공 분야에서 일을 했고, 소셜네트워크 통해 아이들의 아버지와 알게 되어 결혼했다. 가정사정으로 남편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곳에서 6년을 살며 두 아들을 낳았다. 친정과 친척, 친구들과 떨어져 있다보니 아무 도움없이 때론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 셋째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도망쳤다. 사실 남편의 폭력 때문이다. 남편은 아이들과 아내인 아나스타시야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친정집에는 그냥 놀러왔다고 설명하고 한 달 후 아이를 낳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파라는 남편의 설득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집을 얻어 다섯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첫째가 10살이 되어 이혼하기로 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똑같은 남자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라고 그녀는 당시의 결단을 설명했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첫째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가'란 말에 너무나 슬펐다 한다.

아나스타시야는 신체적 학대보다는 정신적 학대를 견디어 내는 게 훨씬 힘들었다고 말했다.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니 이혼과정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혼 후 우울증도 생겼고, 심리학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 신체와 심리를 치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부모는 딸의 이혼에 동의했다. 특히 눈치가 빠른 어머니가 딸의 슬픈 눈을 보면서 여러 번 '괜찮은가?' 물어보았지만 딸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여 '다 괜찮다'라고만 말했었다. 사실관계 를 알게 된 부모님은 딸을 보호하기로 하면서

이혼한 후 아나스타시야는 아이들과 부모님 댁에 살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 때 아나스타시야는 전공한 대로 광고 매니저로 잠깐 일했고, 두 아들을 키워야 해서 주부로서 가족을 지켰다.

2022년에 이혼결심을 한 후 그녀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로 뭘 할 수 있겠는지 고민해야 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엄마 보살핌이 필요하니 하루종일 다니는 직장은 안되었다. 마침 특별 프로그램으로 매니큐어·패지큐어 수업과정을 무료로 수료할 수 있어서 이 분야에서 활약을 시작했다.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게 된 그녀는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도 일로 짝 찰 때가 많다. 대신 아이들의 일정표에 맞춰 갈 수 있게 되었다.

아나스타시야는 매니큐어, 특히 패지큐어란 일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한다. 이 분야에서 일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단골 고객이 좀 생겼다.

그리고 부업으로 아나스타시야는 '피니아타 만들기'를 한다. 피니아타는 파피에 마세로 만든 만화 주인공인데 그 안에 선물을 넣는 것이다. 생일잔치에서 아이들이 이걸 깨뜨리며 기대치 않는 선물에 무척 즐거워한다. 아나스타시야는 이 같은 선물 주문으로 돈을 받은 경우가 있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선물한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즐기는 그녀는 종교를 가지면서 신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난 그녀는 '저는 현재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을 선사해서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지금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유물 전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 80주년 기념으로 주제별 전시 설치물이 준비되었다.

〈승리의 좌표〉 전시회는 사할린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작전의 역사와 성과를 사할린 공항 이용객들에게 소개한다.

발굴된 유물 중 일부는 사할린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수색작업을 통해 발견된 것들이다 〈러시아 수색활동〉 홍보부가 전했다.

전시회 방문자들은 장병들의 생활용품과 무기, 군복, 장병들의 창의적 참호를 엿볼 수 있다. 〈러시아 수색활동〉 사할린 지부의 아르좁 반두라 지부장은 당시 장병들의 창작적 취향은 독특한 현상이었다고 특히 강조했다.

이 공간은 사할린주 정부와 향토박물관, '포베다'역사기념 박물관, 수색활동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다.

Выставк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знакомит с предметами времен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ематические инсталляции подготовили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ыставка «Координаты Победы» посвятит пассажиров островной авиагавани в историю и итог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оисходивших в регионе. Часть предметов поисковики обнаружили в ходе работ на раз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Сахалин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могут увидеть предметы военного быта, элементы вооружения и обмундирования, а также окопное творчество бойц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особенн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тремление военных к творчеству — уникальный феномен.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дготовили пр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и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우리에게 이것이 가정적〉 2차 경연, 사할린에서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가정적〉 전 러시아 경연이 8월 26일에 시작된 가운데 사할린의 가정들이 주거환경 개선 또는 함께 여행할 수 있는 500만 루블리 상당의 60개 상품증서들을 두고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가정의 전 세대가 협력하여 가정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기획 홍보부가 전했다.

최종 주제의 과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가족의 역사를 세밀하게 연구한 후 가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연의 단계는 10월 1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러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퀴즈대회가 진행되어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가족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

팀 구성은 4인 이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9월 14일까지 '러시아 연방 에페세메이노예(это семейное.рф)' 공식사이트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필수조건으로 팀 구성원은 서로 가족관계로 이뤄져야 하고, 3세대 이상의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며, 팀 구성원으로 5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

2024년에 1차 단계에서 팔류라의 가정인 사할린주대표로 나섰는데 이 가정은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이자 4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로서 스웨틀라나 왈렌티노브나와 그녀의 자녀들인 안나, 마리아, 니콜라이와 그의 아내 올가, 또한 손주 일리아, 즐라타, 마카르, 엘리세이가 구성원이었고, 이 팀의 가장 어린 구성원은 한 살도 채 안 되었다.

화목한 팔류라의 가족은 경연의 모든 단계를 무사히 통과

하고, 카렐리아로의 여행 이용권을 획득했다

사할린 팀의 참가자 안나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연에 참가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준결승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유쾌했다.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결승은 진짜 '배고픈 경기'였고, 대통령이 2차 경연을 연장했다. 만약 참가할지 안할지 고민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참가하십시오!"라며 소감을 전했다.

Второй сезон конкурса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стартовал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могут побороться за 60 сертификатов по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и совмест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стартовал 26 августа.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яет поколения, чтобы раскрыть потенциал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оекта.

В финальном тематическом задании участники, изучив подробнее свою историю, составят семейное дерево. Этап продлится до 1 октября, затем пройдет викторина на знание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Семьи с наи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баллов пройдут в этап полуфинал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свою команду из четырех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можно на сайте этосемейное.рф, сделать это следует до 14 сентября.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участия: члены команды должны приходиться друг другу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трех и более поколений, также в составе должен быть ребенок от 5 до 17 лет.

В первом сезоне проекта, в 2024 году,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яла семья Палюра — многодетная мать троих детей и бабушка четверых внуков Светлана Валентиновна, ее дети Анна, Мария и Николай с женой Ольгой, а также внуки Илья, Злата, Макар и Елисей. Самому маленькому члену команды не было и годика. Дружная семья Палюра успешно прошла все этапы конкурса и выиграла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арелию.

(8면에 계속)

사기범 퇴치 및 이주민 통제 법안 9월에 발효

러시아 국가두마 바체슬라브 윌로진 의장은 9월부터 발효되는 러시아 법안 변경에 대해 맥스(Max) 메신저를 통해 설명했다.

사기범 퇴치

사기범과의 투쟁을 위해 종합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그중 첫째 대출신청 제출 시 '냉각 기간'을 도입해 그 기간에는 금융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계좌이체 확인 및 현금 수령 확인을 위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셋째, 다기능센터를 통해 대출 지급에 대한 자동금지를 설정할 수 있다.

넷째, 휴대전화를 통한 자금 갈취에 적극 대처한다.

다섯째, 금융범죄의 형사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법집행기관이 국민 개인과 법인의 계좌 및 거래, 예금정보를 은행으로

부터 수집할 수 있는 초법적 절차를 도입하는 등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범들의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금의 손실을 막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모스크바 시범적 시행

최근 러시아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문이 강화되고, 새로운 조세가 도입된다.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거주지 등록, 지문인식, 생체사진 촬영, 특수 휴대전화앱을 통한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실시한다.

이 모든 것은 외국인 등록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불법이주 규모의 감소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추가 서비스 금지

국민에게 추가 유료서비스 및 추가 업무 부과, 물품 구입 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요구조건은 금지된다.

외국인 대리인

외국의 지원을 받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국내 금지된 정보자원과 관련된 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법무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 기관에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 징수 시 국민에게 5만 루블리, 공무원 수행자에게는 최대 30만 루블리, 법인에게에는 최대 50만 루블리를 부과한다. 또한 러시아 국경 밖에서 법을 위반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 지원을 받는 기관은 교육받은 연령 또는 청각장애에 관계없이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이와 동시에 금지된 행사들에 대한 홍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광고주

와 홍보를 배포하는 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가스 감독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스를 함유한 식품을 아동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미성년자에게 라이터나 내용물을 보충할 수 있는 통 종류를 판매할 경우 200만 루블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격증 향상

교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교육기관에서만 자신의 자격을 향상시키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준비 수준과 교육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윌로진 의장은 이러한 법령을 발효시키며, 경제발전과 국가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언론 매체에서)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 11/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면 제 인생이
딱이겠구나, 싶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술술 밀려드는 늦은
밤입니다. 무더위는 가지
지 않고, 냉방병까지 앓았던
올 여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런 걸까요. 이



러다 여름이 싫어질까 미안했던 기억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싫어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시를 예로 들면, 어떤 시인들의 시집은 아무리 읽어도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한 구절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부터 그 시인들의 시집이라면 일단 제 눈에는 아웃이였죠. 음악도 마찬가지. 유난스럽게 저만의 미학을 들이대며 싫어했던 장르도 참 많았지요. 제가 고등학교 방송반 피디 출신인데, 나름 제 수준을 고집하며 고딩인 줄도 잊은 채 충암고 방송제 때 황병기의 '미궁' 같은 노래를 틀어 댔으니 말 다했지요. 점심 시간에는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이나 발렌슈타인의 'Mother Universe'를 틀곤 했지요. 존 본햄의 드럼 소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를 함께 도모한 베프의 표정이 사색으로 변해가던 모습이 새삼 떠오르네요. 결국 선생님들이 시끄럽다며 당장 음악 끄라고 화를 내시던 기억이.

가요는 듣지 않았어요. 그때 아트 록 매거진을 달달 외우거나, 독일어, 이탈리아도 조금씩 공부할 만큼 그런 쪽 노래만 봤거든요. 가요는 수준 낮은 느낌이었으니. 'New Trolls'도 제 귀에는 너무 달콤해서 별로였음. 용돈은 모두 LP 수집에 썼습니다. 떡볶이 하나 안 사 먹고 모조리 LP 수집에 죄다 투자했지요. 지금은 싱글 몰트와 등산 인증샷을 수집하는 베프 녀석과 틈만 나면, 경향신문사 건너편 디스크 9, 메카 또는 세운상가를 뒤졌던 기억입니다. 희귀 음반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시절의 이야기지요. 유난스러웠지요, 참 나.

이제 저는 가요를 듣습니다. 참 좋아요. 우리말로 부르는 노랫말들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습니 다. 트로트에도 푹 빠져있어요. 국악 트로트 '양지은'이 '등려군'보다 노래를 더 잘하더라고요. 창법이 다르니 비교는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튼 두 분 다 대단하심. 덕분에 트로트 노랫말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자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무시했던 굴곡진 선율, 노랫말들이 대단하다는 걸, 그동안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러시아 가수로는 Станислав Михайлов 자주 들어요. 대중적인 힘을 지닌 선율과 노랫말들이 이제서야 귀에 찰싹찰싹 감겨오 나 봅니다. '케데헌' 음원, 잘 빠져있는데, 국악 트로트도 언젠가 한류의 바람을 타고, 쿠바 또는 런던, 뉴욕, 파리, 모스크바 등지에서 꽃이 피길 바랍니다. 거기서 쓰면 진짜로 쓰는 거거든요. 나도 한 곡 써야지, ㅋ."

(서울에서 허진원)

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092억원 편성

'해외 동포청년 국내 유치·정착 지원' 신규사업 본격 추진 사할린·입양 동포 예산 이관,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2026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동포청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1,092억으로, 올해 본 예산 1,071억원 대비, 약 2%(21억원) 증가됐다.

※ 【동포청 예산 추이】 ('24) 1,067 → ('25) 1,071 → ('26안) 1,092억원

이번 예산은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동포청년 유치·정착 지원 사업」 신규 추진(31억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외 동포청년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6년 사업 첫째 예산은 31억 원으로, 해외 체류 재외동포 중 국내 학업 및 취업·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을 선발해,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취업 준비생 대상 취업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이는 국내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 인재정책 대상을 차세대 동포로 특징화

여 확대한 첫 사례로, 해외 동포청년을 대한민국의 전라적 동반자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② 사할린·입양동포 지원 예산 이관(78억원)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일부 예산을 2026년부터 동포청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77억 원)'은 일제 강제징용 및 남북분단 상황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한인들이 모국으로 영주 귀국 시 정착비 및 입소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양동포 단체 지원(1억 원) 사업은 해외에 소재한 입양동포단체들이 현지에서 시행하는 한국문화 이해사업, 입양동포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산 이관은 재외동포의 역사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관련 예산을 동포청으로 일원화한 첫 사례로서, 동포청의 동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

이다.

③ 한인 정체성 함양(9억원 증액) 및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27억원)

전 세계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9억원 증액, 총 195억원)하여, 한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고 차세대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학습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동포청 내에 보안관제센터(신규, 27억 원)를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동포청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각 사업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해외 동포청년 유치·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과 해외 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등을 확대 지원하여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고창근

관리번호	95383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고창근	한자	高昌根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61)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경남도 홍원		

공훈록

러시아 연해주에서 혈성단(血誠團) 소속

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혈성단은 1920년 11월 만주 흑룡강성(黑龍江省)에서 조직된 항일무장단체였다. 일제의 간도침략과 청산리전투를 전후하여 다른 독립군부대들과 함께 밀산(密山)으로 이동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 결성에 참여하였다가, 일본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이만에서 활동하였다.

고창근은 1922년 2월경 러시아 연해주 이만 자유촌(自由村)에서 혈성단 재무국장

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혈성단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間島 및 同 接壤地方에 있어서 排日團體 및 親日團體 調査의 건(間島總領事代理領事 : 1922. 2. 2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32)

묘소 미확인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бедител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Новая волна-2025» стал Александр Лим

В Казани заверши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Новая волна». В финале за победу боро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и (Jummy, Елена Фрейман, Gevora, Маша Фэй, Secret Atelier, Александр Филин и группа «Оберег»), Азербайджана (Теймур Ганифаев), Армении (Сурен Погосян), Беларуси (Катрин Мурашко), Грузии (Irakli Gadelia) и Казахстана (Yernazar и Alex Lim (Александр Лим)).

Главный приз завоевал 33-летний Alex Lim (Александр Лим) из Казахстана. Его проникновен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 песнями «Сибирские розы», «Всё впереди» и «Забывай» покорили жюри и зрителей, принеся ему заслуженную победу. В финале Alex Lim исполнил песню «Забывай», набрав 251 балл и опередив на 14 баллов российский фолк-проект «Оберег».

Александр Лим родился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городе Балхаш. Музыка увлекается с детства, хот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 получил. Свою карьеру начинал с выступлений в ресторанах Алматы, а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иобрел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ям в телешоу.

Александр Лим (Alex Lim) стал перв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азахстана, победившим в истории конкурса «Новая волна». Победитель получил почетную статуэтку и главный приз — 10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https://t.me/saramkor>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Москве отметили двойной юбилей

В банкетном зале «Консул» Академии МИД в Москве 23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80-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и 25-летию основани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О ОСК, Москва). На праздник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коло 8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О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теплой и трогательной атмосфере памят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первому поко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клонный возраст, нашли силы прийти на праздник.

Центральным моментом вечера стала минута молчания в память о родителях, которые так и не дожили до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Эта дань уважения глубоко тронула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включая нов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н Сон Мин (안성민), которая отметила искренность и глубину этого жеста.

Гостей вечера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тупление вокальной группы «Гальмеги» сменилось трогательным танцем с веерами в исполнении коллектива «Ариран Русь».

Песня «Возвращение в порт Пусан» («돌아와요 부산항에») является негласным гимно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е мощное исполнение Ю Син Чаном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хора было поддержано зрителями из зала.

Не оставил никого равнодушным и Че Зюн Ха, исполнивший народную корейскую песню «Риллирия».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настолько задорным, что гости не смогли устоять на месте и пустились в пляс. Продолжили праздник танцовщицы, которые исполнили лирический танец Бидулги и ритмичный танец с барабанами, гости услышали также музыкальные номера в исполнении Пак Су Бока и Ким Ён Дя.

Для многих трогательным моментом стал показ слайд-фильма «Корея далекая и близкая», автор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Ким Тхе Ик, а также ролика из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Пак Су Бок, его супругой Гвон Ён Хе и их внучкой. На экране каждый из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мог увидеть себя и вспомнить памятные моменты из жизни общины.

Приятным завершением вечера стало вручение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х писем и сладких медалей активистам Общества, прежним председателя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аздник продолжался до глубокого вечера. Гости, позабыв про свои года, без устали танцевали, пел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задорной кавер-группы в составе Марии Тихоновой-Мян и Александра Син,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ли Оргкомитет во главе с Син Ден Хе, подготовивший этот яркий и незабываемый праздник. Этот юбилейный вечер надолго останется в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ведущий праздника Ше Фан Мин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я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Письмо моей матери

В ночь на 3 декабря 1973 года я узнал из радиопередачи, где зачитали письмо Чан Хвана (장환), в котором сообщали, что моя мать жива. Я не мог поверить своим ушам. Как описать словами чувства недостойного сына, который уже десять лет проводит обряды поминовения (1), не зная, жива его мать или нет?

Одвоев в 36 лет, моя мать одна растила нас. Она торопила время, чтобы мы могли смотреть кино, и когда дети, включая и Ён Хвана (영환), покинули дом, тяжело заболела. Я пишу это письмо в надежде, что оно дойдет до моей матери. Когда я узнал, что она жива, я сразу же захотел навестить её.

В 1945 году я женился, у меня трое сыновей и две дочери. Старшего сына уже женили, так что я надеюсь, вы сможете его увидеть. Хотя сейчас я не могу выехать, но со временем можно будет приехать, поэтому я надеюсь, что вы будете здоровы и проживёте долгою жизнь.

15 декабря 1973 г.
Недостойный Си Хван (시환) (2)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Важнейшими для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были обряды поминовения, которые соблюдаются с древности.

Обряды поминовения (제사, чеса) — это особые церемонии, когда семья собирается вместе,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умер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о время этих обрядов на стол ставят еду и напитки, кланяются духам предков и просят их о защите и благословении. Эта традиция существует в Корее уже много тысяч лет и оста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семейных традиций.

Истоки этих обрядов идут из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 когда корейские племена верили в духов природы. Древние корейцы думали, что духи живут в горах, реках, деревьях и что после смерти души людей продолжают существовать и нуждаются в заботе живых. Они приносили духам еду и просили их о помощ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Особенно почитали духов неба и звезд.

В те времена существовали шаманы — особ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могли общаться с духами. Шаманы проводили обряды под названием «кут»,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они пели, танцевали и входили в особое состояние, чтобы передать просьбы людей духам. Женщины-шаманы назывались «мудан». Они помогали людям лечиться, предсказывали будущее и проводили обряды для умерших.

Когда в Корею появились первые государства — Когурё, Пэкче и Силла, правители тоже стали проводить обряды поминовения. Считалось, что короли получили власть от неба, поэтому их тоже почитали как особых людей. В честь умерших правителей четыре раза в год проводил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церемонии.

В 372 году из Китая в Корею пришел буддизм. Эта религия принесла новые идеи о жизни после смерти, но старые традиции почитания предков не исчезли. Наоборот, буддизм смешался с местными верованиями и создал особую корейскую форму буддизма. Шаманизм стал мягче под влиянием буддийского учения о сострадании.

Во времена государства Корё (918–1392) буддизм стал главной религией. Короли поддерживали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но обряды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продолжали существовать. Шаманы уже не так часто появлялись при дворе, но простые люди по-прежнему обращались к ним за помощью.

Самые больши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зошли, когда к власти пришла династия Чосон (1392–1910). Новые правители сделали конфуцианство главной идеологией государства. Конфуцианство — это китайское учение, которое очень важно относится к почитанию родителей и предков.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шаманизм стали считать суеверием, а обряды поминовения получили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Правители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создали «Пять видов церемоний», куда входили и обряды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В XV веке издали «Великое уложение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с подробными правилами проведения этих церемоний. Обряды стали очень сложными, особенно в знатных семьях. Появились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где какую еду ставить, как кланяться, что говорить.

Сегодня в Корею проводят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поминальных обрядов. Главный называется «чеса» — его делают в годовщину смерти родственника. «Чхаре» проводят во время больших праздников — корейского Нового года (Соллаль) и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Чхусок). Есть еще «кидже-са» — обряд, который проводят через 12 часов после смерти человека.

Для обряда готовят специальный стол с едой. Есть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красные фрукты ставят на восток, белые — на запад; рыбу — на восток, мясо — на запад; фрукты располагают в определенном порядке — финики, каштаны, груши, хурма.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ы быть рис и суп, но нельзя использовать острый красный перец. Еду расставляют в пять рядов, а в центре ставят табличку с именем умершего.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семья сначала кланяется перед столом, потом все выходит из комнаты, чтобы дух предка мог «поесть».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тарший в семье кашляет три раза — это знак, что можно вернуться. Потом заваривают особый напиток из риса для предка, снова кланяются, и обряд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читается, что после этого дух предка будет защищать семью целый год.

Когда умирал член семьи, родственники должны были носить траур три года. Первые два года — строгий траур: нельзя было работать, ходить в гости, веселиться, жениться. Последний год был легче, но все равно нужно было носить особую одежду и соблюдать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севере Кореи похоронные обряды были сложнее, а на юге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яли поминкам.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е эти традиции живы до сих пор. Праздники Чхусок и Соллаль остаются самыми важными семей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когда все родственники собираются вместе и проводят обряды памяти предков. Правда, сейчас обряд может проводить любой член семьи — не только старший сын, как раньше, но и дочери или младшие сыновья. Это показывает, как древние традиции приспосабливаются к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и, сохраняя свою главную идею — связь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и уважение к предкам.

(2) Скорее всего, упомянутые в тексте Чан Хван, Ён Хван и Си Хван (без фамилии) являются родными или двоюродными братьями. На это указывает одинаковый второй слог (иероглиф) в имени.

У корейцев один из слогов имени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одного поколения является одинаковы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адиционной системой халлельча (향렬차), что означает «одинаковый слог». Эта система служит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определенному поколению рода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ме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е имя традиционно состоит из одного слога фамилии и двух слогов имени, при этом один слог имени является поколенческим маркером халлельча, а второй остается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выбора семьи.

Халлельча определяется строгим циклом пяти стихий традиционной философии инь и ян,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металл (금, гым), воду (수, су), дерево (목, мок), огонь (화, хва) и землю (토, то) именно в этом порядке. Система работае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если у отца в имени присутствует слог с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металл», например 鍾 (чжон, колокол)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имени, то у его сына будет слог с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вода», например 海 (хэ, море)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имени. При этом позиции халлельча чередуются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 сначал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имени, затем на втором, что соз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систему идентификации.

Эта цикличность повторяется каждые десять поколений, позволяя даже незнакомым людям при встрече определить, что они принадлежат к одному поколению одного рода, просто анализируя структуру имен. Система халлельча от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конфуцианские ц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дчеркивая важность кровных связей, генеалогической иерархии и родовой памяти. Поскольку и фамилия, и поколенческий слог predetermined традицией, только один слог в корейском имени остается предметом свободного выбора семьи, что делает корейскую систему именовани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ых в мире.

Юлия Дин, к.и.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выступит на сессии ГА ООН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80-й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23 сент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а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Кан Ю Чжо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делится с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опытом Сеула по подавлению попыт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емократии, представит полити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ключевым мировым проблемам, включая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кризис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Участие Ли Чжэ Мёна в сессии подтвердит статус РК как «надёжного партнёра»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укрепит лидерство страны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рене, — добавила Кан Ю Чжон. В сентябре РК являл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ципом ротации. 24 сент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ведут заседание, посвящённое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и его влиянию на глобальный мир.

Лидер КНДР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новым ракетным двигателем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хим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ри Главном ракетном управлении, где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компози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з углеродного волокна и новых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Как сообщило 2 сентябр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изучил результаты испытаний нового твёрдотопливного двигателя,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ракет типа «Хвасон-19», а также для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Хвасон-20». По данным ЦТАК, максимальная тяга нового твёрдотопливного двигателя составляет 1.960 килоньютонов. Ким Чен Ыну доложили, что институт провёл восемь наземных испытаний для проверки надёжности и точности двигателя.

РК приступает к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у в СБ ООН

2 сентябр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ципом ежемесячной ротации РК приступает к обязанностям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Являясь в 2024-2025 годах непостоянным членом Совбеза, РК была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период максималь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Ежемесячное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 поочередно переходит от одного из 15 постоянных и непостоянных членов Совбеза к другому в порядке англи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РК в пятый раз займёт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с момента вступления в ООН в 1991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готовит нов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тратег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готовит и планируе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бнародовать нов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тратегию.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Ку Юн Чхоль, выступая 2 сентября на совещании минист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ока. После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тариф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с СШ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й. Они получат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с таможенным оформлением. Будут также прилож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ице-премье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глоб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и противостоять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и в мировой торговой среде.

Компании РК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четырёх категория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заняли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рыночной доле в четырёх из 71 категории основны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Как пишет 2 сентября японская газета «Нихон кейдзай», это чипы памяти DRAM, флеш-память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NAND, OLED-дисплеи и ультратонкие телевизоры. На рынке DRAM доля Samsung Electronics составила 41,1%, SK hynix - 33,8%. В сегменте OLED-панелей у Samsung 41,7% рынка, у LG Display - 23,8%. На рынке памяти NAND Flash доля Samsung составила 34,8%, а SK hynix - 21,3% рынка. В категории ультратонких телевизоров доля Samsung составила 16,3%, а LG Electronics - 14,6%. Компании из США лидировали в 27 категориях, китайские - в 18, а японские - в 9 категориях.

В июле Сеул посетили 1,36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июле Сеул посетили 1 млн 36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 на 23,1%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меся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 сентября в столич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 января по июль в Сеуле побыва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8 млн 28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Это на 15,9%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числу туристов в июле лидирует Китай - 470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Япония - 240 тысяч, Тайвань - 160 тысяч и США - 100 тысяч посетителей. **RKI**

3 сентября —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этот значимый день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ялось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к памятнику, посвящённому трагическим событиям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 месту, которое хранит память о невинных жертвах, погибших в ходе «резни в Мидзухо».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жертв прибыл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н Кук Чан Хён,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амятник в Мидзухо напоминает о боли и страданиях, выпавших на долю многих в годы войны. Именно 3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ы вновь возвращаемся к этим страницам истории — чтобы помнить, чтобы не забывать цену мира, свободы и человечности.

(Телегра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Будущее корё-сарам в Кор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 партнёрская модель

29 августа в з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скуссия «Поддержка адаптац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е», приуроченная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страны. В обсужде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путаты парламен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научное сообщество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программе дискуссии прозвучали три ключевых доклада:

- О положении и вызовах интеграции (Жанна Тен,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 О визовой политике и трудовых ограничениях (Ким Ёнсук,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орё-сарам в Ансане и член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Общества поддержки корё-сарам "Номо");
- О проблемах образования и будущем молодёжи (Чо Намчхоль,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онда азиат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три ключевых акцента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Жанна Тен обозначила три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момента.

1.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ё-сарам нельзя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иностранных». Исторически они были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участвовали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тояли у истоков Первого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Приморье. Сегодня вопрос стоит не в рамках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а как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на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уровне. Такой подход соответству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актике: Германия и Израиль вернули гражданство сво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з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опираясь именно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принцип правопреимства.

2. От объекта помощи — к партнёрству.

Модель, при которой корё-сарам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объек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больше не отвечает реалиям.

«Мы должны перейти к партнёрской модели, где голос корё-сарам учитывается в парламенте и министерствах, а Ассоциация выступ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осредником в диалоге с государством», — подчеркнула Жанна Тен.

Это означает смену парадигмы: от «помощи ради адаптации» к совмест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будущую страну, где корё-сарам — не слабое звено, а равноправный участник.

3. Корё-сарам — не «цифры» для статистики.

Сегодня некоторые депопулирующие регионы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воспринимают корё-сарам как удоб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пополн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Однако без рабочих мест,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полноц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ая политика заранее обречена.

«Мы не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заполнен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устот и пустующих аудиторий. Мы хотим жить и учиться не для цифр в отчётах, а как равноправные граждане, строящие своё будущее и вносящие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 заявила глава АКРК.

Молодёжь, образовани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ереподготовка

Большой блок доклада был посвящён детям и молодёжи. Жанна Тен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у них формируется опасный феномен «языкового вакуум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усваивается слабо, а русский язык утрачивается как язык мышления. Это создаёт риски не только для успеваемости в школе, но и для фор-

мирова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обрекая наших детей на аутсайдерство.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е взрослых. Сегодня мигрантам в основном предлагают шаблонные курсы, которые закрепляют их в низкооплачиваемом секторе. АКРК настаивает на систем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ткрывающих путь в новые сферы.

Такие меры превращают интеграцию из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ациональную кадровую политику,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условиях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 Корее.

Перспективы корейно-маиль: ресурс или проблема

Отдельным вопросом Жанна Тен выделила корейно-маиль — районы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рё-сарам, которые уже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в Ансане, Инчхоне, Кванджу, Ансоне, Хвасоне, Асане, Кёнджу, Кимхэ, Тэгу и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Эти анклавные возникли стихийно, вокруг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и рабочих мест. У них есть две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Геттоизация — замыкание на себе, изоляция, снижение контактов с обществом. Подобные примеры известны в Европе, где политик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привела к созданию параллельных обществ.

Культурно-этнические оазисы — при правильной политике они могут сохранять язык и традиции, но при этом становиться площадками открытого обмен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о будет относиться к таким кварталам как к проблеме, они превратятся в гетто. Но если увидеть в них ресурс, корейно-маиль могут стать точками роста и оживления регионов, особенно там, где население сокращается», — отметила Жанна Те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чь идёт не о неизбежности, а о выборе: гетто или культурные оазисы. Всё зависит о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местной политики.

Итог дискуссии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другие спикеры также затронули вопросы визовой реформы, трудовых прав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Эксперты и депутаты согласились: без системных мер, учитывающих специфику корё-сарам, невоз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б их полноценной интеграции.

Заключение

Жанна Тен завершила доклад ключевым посылом: интеграция корё-сарам — это не «частная проблема мигрантов», а показатель будущего Кореи.

Пора уйти от политики ассимиляции, когда от корё-сарам ожидают полного растворения в обществе. Необходимо видеть в них носителей уникального опыта и культурного ресурса, способных обогатит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сделать его более многообразным и инклюзивным.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ро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символики. Это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умеет формулировать позицию диаспоры, доводить её до властей и добиваться включения интересов общины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повестку.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КРК)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компанией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знани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стоялось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островным вузом и ООО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в присутств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и ректор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Валерий Гурьян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строится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Базой для него станет островной университет.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вузу —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для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Процес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ей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туденты должны с помощью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лабораторий и стажировок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и знания.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ахГУ и компанией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о еще одним шагом по реализаци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ной власти.

У нас на глазах растёт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 абсолютно новая и современная база высшей школы,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Из его стен вы выйдете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 отличными практическими навыкам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работу в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ях области с достойной оплатой труда. Это прямой путь к успеху в жизн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ести пользу нашему региону и всей стране, — обратился к студента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ГУ на направления бакалавриата и специалитета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поступил 561 студент. Из них по техн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ля Передовой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Инженерия островов» выделено 249 бюджетных мест.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большинство студентов вуза, обучающихся на платной основе, получили субсид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 сделали правильный выбор, остановившись на нашем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Здесь рождается будущее. В этом году происходит глубо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вуза: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творческие и науч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оснащён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классы и современные аудитории. Кампус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компетенций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 всей души желаю вам быть креатив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и усердными в учёбе, — добав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учебные корпуса, лабораторный комплекс и технопарк, а также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с тремя многоэтажными общежитиями на 1500 мест. В обновлённом вузе 250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учёных будут вести занятия для более чем 2500 студентов.

На Сахалин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День зна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филиал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ТГМУ Валентин Шуматов поздравили ребят с началом учебного года и вручили 28 первокурсникам студенческие билеты.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билась значи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едицин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знана самой доступной в стране. Как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ажным этапом в развитии отрасли и подготовке собственных кадров стал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начавшееся еще в 2022 году.

Мы уверенно смотрим в будущее и создаем на островах собств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кластер, куда люди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за диагностикой, лечением и реабилитацией. Открытие филиала медицинского вуза на Сахалине — это огромный шаг в развитии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медицин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В будущем все они станут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 продолжат работ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ервый курс набран по программе специалитета «Лечебное дело». Наряду с первокурсниками, обуч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т студенты старших курсов и ординаторы.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в гибридном формате — на баз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ТГМУ. Постепенно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переведено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Для этого уже готовится симуляционный центр, идет закупка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й по базовым дисциплинам, таким как анатомия, гистология, физиология, микробиология.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начительно выделяется на фоне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за счет динам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должно быть передовым. Остров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снащены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активно внедряются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Открытие филиала ТГМУ и дальнейшая работа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тому,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ет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не только для студентов-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но и для жителей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 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ТГМУ Валентин Шуматов.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 Медицинским вузом провед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ограмм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остров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егодня в главном корпусе ТГМУ обучаются порядка 200 студентов и ординаторов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 по договорам о цел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что гарантирует последующе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Также созданы две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клиники —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ютс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проекты.

В День зна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новая школа на 1260 мест

В День знаний свои двери распахнула новая школа № 24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быв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Авангард» рассчитано на 1 260 учеников. Здание состоит из 9 корпусов. Каждый из них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определенн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учеников.

Сегодня открывается новая школа, в которой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наших юных земляков. Каждый из них обладает важными для общества талантами 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Нужно только выявить и развить их. Поэтому веде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ую модернизацию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Возводим современные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е школ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Тех Алайд» помогаем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 выбрать будущие профессии и сформировать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Мы строим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чтобы дать нашим землякам шанс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на благо своей семьи,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и Росси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овой школе для учеников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отведен блок со сво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отдельный вход, гардероб и санузлы. Здесь расположились 20 учебных кабинетов, языковые классы, кабинеты психолога и логопеда, IT-лаборатории, четыре спальни для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и игровые зоны для групп продлённого дня.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сь две школы, построенны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дна — № 24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Авангард», вторая — № 25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изонт». Это поистине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для нашего города, —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школе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и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Управление школо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одителя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атрис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Эта работа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68-м армейским корпусом, центром «Воин», учреждениями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из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сформируют кадетский (казачий) класс.

Мы очень долго ждали открытия этой школы. Ребята не сразу поступили, но все-таки у нас получилось. Мои дети хотели именно в эту современную школу. Все довольны, здесь очень красиво, поэтому у детей настоящее вдохновение,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Елена Забегалина, мама двух детей.

В этом году школьный звонок прозвенел для 63 300 сахалинских ребят. 6029 из них впервые переступили порог школы. 3 393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 готовятся к выпуску.

В 2024-2025 годах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и благоустроили 80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реди них 50 детских сада и 30 школ. В 2024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здание школы №30 в Луговом на 550 мест, а также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для школы № 1 в Тымовском.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 капремонт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24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13 школ.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на 288 мест, школы-детского сада на 90 мест в селе Взморь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на 110 мест в селе Китовое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выставке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честв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рамках десятого, юбилейно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качеств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есятый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проходи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ий 3–9 сентября. Одной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площадок этого круп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выставка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вуют все регионы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началась с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шествия с Георгиевской лентой. По набережной прошли ветераны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легаций,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

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Юрий Трутнев.

Десятый раз мы открываем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ткрываем выставку «Ул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гда мы создавали ее, мы мечтали о том, чтобы выставка рассказала о нашей любви к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Приморью и Хабаровскому краю, Бурятии и Якути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Чукотке. Сегодня, когда прошло уже немало времени, на вопрос: «Получилось у нас это или нет?» я могу твердо сказать — получилось.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огромному труду людей — тех, кто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конечно, дело совсем не только в «Улиц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меняется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города и поселки,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больницы,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улучшает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 и обеспеченным. Все это мы делаем благодаря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который еще в 2013 году объявил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кто участвует в этой работе, хочу пожелать нам новых успехов и всего самого наилучшего, — сказал Юрий Трутнев.

Символично, что сегодня, в День 80-летия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сновным лейтмотивом экспозиц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Улиц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л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Здесь размещены архивные фото, запечатлевшие события тех лет, а также материалы, посвященные созданию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музей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умшу. Этот курильский остров с мощными укреплениями в 1945 году штурмом взяли советские десан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овится энергетическим и логис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информация о ключев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инициативах островов, размещенная в основном павильоне. В здании в виде набегающих волн размещены стенды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Отдельные экспозиции посвящены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производству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туристическому потенциалу.

Мы придаем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проекту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Сегодня идет обновление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иступим к дноуглублению. Это дас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океанские суда с большой осадкой, в том числе и круизные лайнеры. В итоге увеличится грузооборот, вырастет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Наш порт станет важным пунктом глоба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коридора —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ет европейскую часть России и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Но мы думаем не только о глоб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но и качестве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Поэтому активно строим современные 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Он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комфор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от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до магазинов и спортзалов,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начинаний — наращивание потенциала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сс должна увеличиться с 42 километров до 75. Близи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щного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в селе Озерск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орабатывают вопрос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ефти и газа на шельфе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При это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анее созда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новом павиль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выполнен в виде корабля,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одукция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сувениры, одежда с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мволикой, а также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

Прежде считала,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это что-то очень далекое. А сегодня убедилась, что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регион. Есть различные варианты туризма. Узнала, что на островах есть передовые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мощ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уникальная природа и яркая история. Сделала на будущее для себя заметку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стоит посетить, — отметила Екатерина Смирн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елегации компании «Интеррос», после осмотра островного павильона.

Внимание Никиты Румянцева, депут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от Бел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влек стенд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Это иннов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важный не только для региона, но и всей страны. Есть стереотип,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суровый климат, плохая погода. Но я у вас в павильоне сделал для себя открытие. Оказывается, на острове много солнечных дней, а такж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ическ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 сказал он.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 ключев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созда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российского и миров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сесторонней экспертной оценк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его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и условий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청년들, 산업분야 직업연수 수료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지역 출신 거주 고려인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산업분야 직업연수를 실시하고, 8월 29일 한국폴리텍II대학 인천캠퍼스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고려인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모국과의 연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으며,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2달간 진행되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출신 고려인 청년 총 13명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연수 기간 중 러시아 현지 취업으로 1명이 중도 귀국해 총 12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코딩·산업디자인 등 AI 기술 분야에서 각각 265시간의 실습을 하고, 106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했다. 수료 후에도 각자의 출신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할 예정이다.

연수생들은 연수 동안 삼성전자, 카카오 등 산업현장을 견학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비무장지대(DMZ), 경복궁 등 다양한 역사·문화 현장을 체험했다. 또한 동대문, 광장시장, 한국 가정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국내 문화·생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수료식에는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과 최민환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 국장은 이번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이번 경험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길 바라고, 재외동포청은 과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의 독립 등에 기여한 것을 우리 정부는 잊지 않고 있으며, 거주국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최민환 학장은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무사히 연수를 마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폴리텍II대학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출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폴리텍II대학은 재외동포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연수생 대표인 신 발레리아 학생은 "연수 프로그램 중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외동포청과 폴리텍 대학에 감사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만큼 거주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산업분야 직업연수에 이어, 하반기(12월 예정)에 고려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과 함께 호텔서비스분야 직업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지역 정착 방안 논의

제2차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외동포청과 국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및 학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선 의원은 환영사에서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된 우리 선조들의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은 오랜 이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며,

"국내 체류 동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 지원 제도 및 예산이 현장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어 고려인 동포들의 교육, 일자리,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3일 제1차 회의 이어 이번 회의도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본 포럼은 고국에 귀환한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는 2023년 고려인동포법을 제정하고, 러-우 전쟁 피난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분상 불안정성, 경제적 궁핍, 언어·문화적 차이 등 고려인 동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며,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으로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이어진 회의 첫번째 발표에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동포)로 이원화된 국내 체류자격으로 인해 동포들은 개인의 능력, 선호도와 무관하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다수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는 한편, 언어학습 지원, 보육 프로그램, 교육정보 제공 등 국내 동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과제로 △단순 체류자격이 아닌 국적 회복 지원, 진로 상담, 기술전문대학 트랙 강화, 장학지원 등 차세대 동포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대한고려인협회와 재외동포청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다음 발표자인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은 '외국인력'으로 간주되는 H-2 체류자격의 고려인 동포들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는 것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임을 언급하고, H-2와 F-4 비자 통합 등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KGN(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고려인 동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92.5%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며 한국 학교 적응이 힘든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타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국내 대안학교 설립 요건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청,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의 국내 체류 동포업무 담당자와 경희대 산학협력단 등 학계 및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도 참여해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중도입국 고려인 동포 자녀의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변철환 차장은 이번 포럼의 공동주최자인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본 포럼은 의미가 각별하다"며,

"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고국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며, 사명 의식을 갖고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 자격, 고용 노동 환경 개선, 차세대 교육 등 이 자리에서 논의 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Дочь, дебют и почетное место: появление Ким Чен Ына в Пекине вызвало ажиотаж у мировых СМИ

Ким Чен Ын приехал в Китай с министрами, но без военных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оказалс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на торжествах по случаю 80-лети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китайской столице. Сам факт его участия стал событием: впервы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явился н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лощадке. Каждое его движение - от проезда по мосту в Даньдуне до выхода на Тяньаньмэнь - фиксировали телекамеры и 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аналитики.

Все передвижения Кима, включая отход его "Спецпоезда-солнце"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состава вождя) от вокзала в Пхеньяне до прибытия в Пекин тщательно отслежива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МИ, которые сообщили, что состав тихо и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огнями в три часа утра во вторник проследовал через пограничный мост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 городом Синийчжу и китайским Даньдуном, а затем в 4 часа дня прибыл в столицу Поднебесной, завершив двадцатичасовой путь.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вокзале в Пекине Ким Чен Ына встречали красная дорожка, почетный караул 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ита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 их числе - секретарь Секретариата ЦК КПК Цай Ц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Р Ван И, партийный секретарь Пекина Инь Юн, замглавы МИД по корей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унь Вэйдун и посол Китая в Пхеньяне Ван Яцзюнь. Усиленн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толице, закрытые кварталы и жесткие досмотры подчеркивали исключительный статус визита.

Без военных и жены, но с министрами, сестрой и дочерью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КНДР сразу же стал предметом анализа.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шлых зарубежных поездок в Пекине рядом с Кимом не оказалось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военных. Его окружение выглядело подчеркнут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секретарь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Чо Ён Во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Док Хун, за-

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ЦК ТПК Чу Чхан Иль,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хве Сон Хи, заведующ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делом ЦК ТПК Ким Сон Нам и други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экспертов привлекли сопровождавшие Кима три женщин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а его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Ким Ё Чжон, а также Хён Сон Воль. Обе занимают ответственные посты в отделе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К партии, а Хён ранее возглавляла ансамбль "Моранбон", но затем стремительно взлетела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Но, конечно ж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ла дочь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Чжу Э, которой 12 или 13 лет. Она шла рядом с отцом, вперед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то выглядело как наделение ее особым протокольным статусом. Отсутствие супруги лидера Ли Соль Чжу только усилило интерес к фигуре дочери.

Символизм и спекуляции

Отсутствие генералов и маршалов объясняют как практическими, так и символическими причинами. Многие из военных входят в список персон, которым запрещен выезд за рубеж в рамках санкций Совбеза ООН, и Китай строго следует этим ограничениям. Но столь явно "гражданский"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также подчеркива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оездки: речь шла не о военных парадах, а 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и Пхеньян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Приглашение дочери вызвало оживленные дискусс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и Японии. Часть экспертов увидели в этом сиг-

нал о начале "стажировки наследницы"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цене, напомнив, что будущ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Ир в 1950-1960-е годы также сопровождал отца в поездках. Другие сочли визит жестом л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ездкой" для девочки. Аналитики тем не менее сходятся во мнении, что девушку точно представят высшему политическ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Кита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е публично. Подтекст будет понятен - эта девочка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вероятности станет во главе Страны чучхе, когда отец решит уйти на покой.

Дебют н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арене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дня - мес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на трибуне в ходе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Ким Чен Ын стоял рядом с Си Цзиньпином 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а кадры и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хода по Тяньаньмэнь облетели мировые СМИ. Иностранные агентства расценили это как демонстрацию того, что КНДР уходит от образа "изоляции" и вписывает себя в лин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Особой деталью стала короткая встреча Ким Чен Ына со спикером парлам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У Вон Сиком,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л делегацию Сеула. Они обменялись рукопожатием и несколькими словами в комнате ожидания перед началом парада.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это стало важным жестом,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м хотя бы миним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будущего диалога.

Ким же, который, получается, дебютировал н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где помимо него было более двух десятков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 политиков его уровня, вел себя весьма уверенно и спокойно.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было видно по тому, как он общалс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пикером парламента и други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лидерами.

Среди прочих интересных деталей, которые отметили СМИ, проезд Ким Чен Ына на свое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ком Мерседесе, который привезли на поезде из Пхеньяна, а также его оживленные беседы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и Си Цзиньпином. Безусловно, многих также интересует, состоятся ли у Кима какие-то другие полноценные переговоры помимо саммитов с лидерами России и Китая, но об этом пока информации н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вый многосторонний дебют Ким Чен Ына оказался тщательно рассчитанным шо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на внешнюю и внутреннюю аудиторию.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и сами СМИ КНДР также моментально сообщили об основных моментах поездки вождя, хотя ранее в ходе его визитов выдавали информацию в КНДР с запозданием на пару-тройку дней.

От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го отсутствия военных до появления дочери рядом с лидерами Китая и России - все работало на картинку сильного, увер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торый не только укрепил союз с Пекином и Москвой, но и представил миру намек на возмож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династ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Я безумно благодарна конкурсу за то, что мы встретились и провели время вместе. Полуфина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был теплый, домашний и уютный, финал в Москве — настоящие „голодные игры“, — поделилась участница сахалинской команды Анна. — Президент продлил игру на второй сезон. Если сомневаетесь, участвуйте или нет — не сомневайтесь! Участвуйте!»

제 11회 <사할린의 날개들> 축제 9월 5일 시작

2025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할린의 날개들> 축제가 전통적으로 코르사코프 지역의 '푸쉬스티' 무인기 공항 구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3일간 항공, 음악, 스포츠의 날들이 사할린주의 주민들과 방문객을 기다린다.

3일간 진행되는 연례행사의 방문객들을 위해 활발한 행사장들이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이곳에서 활동교실을 비롯해 창작 교실, 안전 실험실, 종이로 모형 만들기, 비즈공예, 그림 활동교실, 저글링 놀이, 박물관과 도서관 전시회, 어린이 놀이기구, 보드게임, 수공예교실, 또한 하이드로볼, 컬링, 양궁, 복싱, 럭비, 비치삼보, 배구, 드론 농구, 피트니스-점프, 러시아 레슬링, 체스경기, 야구, 가라테 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행사장도 펼쳐진다.

축제 개막식은 9월 6일 19시에, 9월 7일 23시에는 축하의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할린주 스포츠부 공식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 축제 참가자들, 가수와 음악 그룹의 공연 시간표, 행사장까지 가는 방법과 교통편 및 경로, 주차, 축제 구역의 규정, 반입금지물품 목록 등을 알아볼 수 있다.

XI 축제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5월 9일 시작

С 5 по 7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ждут три дня авиации, музыки и спорта. Традиционно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танет территория дронопорта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се три дня для гостей ежегодного события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активные зоны. Они включают мастер-классы,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лаборатор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бумажное моделирование, бисероплете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жонглирование, выставки музеев и библиотек, детские аттракционы,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ремесленные мастерские, а также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по гидроболу, кёрлингу,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боксу, регби, пляжному самбо, волейболу, дрон-баскетболу, фитнес-джампу, русской борьбе, шахматам, бейсболу и каратэ.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ся 6 сентября в 19.00, 7 сентября в 23.00 гостей ожидает праздничный салют.

Подроб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десь можно узнать об участниках фестиваля, время выступления музыкальных групп и солистов,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ю, как добраться до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ая трансфер и логистику, о парковке, правила нахожд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фестиваля, список запрещённых к проносу предметов и пр.

사할린 곰, 고래고기 즐겨

아니와 생물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니와 해변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곰을 촬영했는데 곰이 죽은 고래의 냄새를 맡고 와서 풍성한 고래고기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아니와 해안의 과학자들은 크지 않은 고래의 사체가 해안으로 떠밀려왔다고 전했다.

이 모든 정황상 사체는 냄새를 풍기며 삭아가면서 타이가 숲의 제왕인 곰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구 전문가들은 "우리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드론과 쌍안경을 통해 어떻게 곰이 사체를 즐기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медведь съел кита

Медвежье пиршество попало в объектив камеры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ющих на биостанции Анива. Мишка пришел на запах мертвого кита и знатно полакомился.

Ученые, расположившиеся в заливе Анива, сооб-

щили, что тушу небольшого кита вынесло на берег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За это время она,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настоялась", что и привлекло хозяина тайги.

"Теперь мы можем, не выходя за забор, с коптеров и через бинокли наблюдать, как тушей интересуются медведи", - поделились специалистами.

러시아에서 뷰티서비스의 남성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2025년 여름 러시아인들이 미용 분야의 남성 전문가들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워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남성 메이크업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여름보다 74% 증가했고, 여성 메이크업 전문가에 대한 관심은 53% 증가했다.

또한 남성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전문가에 대한 관심은 34%, 눈썹과 속눈썹 전문가에 대한 관심은 9%, 미용사에 대한 관심은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고객들이 이러한 뷰티 전문가들의 성별보다는 스타일과 전문성에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성들은 신선한 관점, 대담한 아이디어, 세심한 부분에 대한 특별 주의를 제공하고 있다.

В России растёт спрос на бьюти-услуги от мужчин

Летом 2025 года россияне стали чаще выбирать мастеров-мужчин в сфере красот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ы «Авито услуги».

По данным аналитиков, интерес к мужчинам-визажистам вырос на 7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летом, тогда как к женщинам-мастерам — на 53%. Также увеличился спрос на мужчин-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маникюру и педикюру (+34%), ресницам и бровям (+9%), а также парикмахерам (+2%).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клиенты всё чаще ориентируются не на пол мастера, а на его стиль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Мужчины, по словам аналитиков, предлагают свежий взгляд на индустрию, смелые идеи 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 деталя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